



후로렌스· 나이팅겔

—그의 思想과 生涯

—李 春 愛—

〈序 論〉

우리 看護員들의 입에서 近代看護의 先驅者로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며 崇拜 當하고 있는 나이팅겔. 그러면서도 나이팅겔에 對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것 같으나 잘 모르고 있으며 가까운것 같으면서도 우리 看護事業에서 너무나 먼 距離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原稿請託을 받고 먼저 讀者들에게 나이팅겔에 對한 豊富하고 正確한 理解를 가지도록 傳記를 傳해드리고 싶었으나, 나이팅겔 傳記의 資料를 入手하는데는 말할 수 없는 困難을 體驗했었다. 世上사람들에게 그렇게도 有名하게 알려워져 있는 나이팅겔의 傳記가 큰 書店에서도 눈에 띌 수 없었던 것을 몹시 섭섭

하게 生覺한다. 더구나 그의 貴重한 글쉴과 그에 關한 책이 우리말로 翻譯된 것이 賁하다는 點이다. 겨우 몇 권의 外書만이라도 入手하게 된 것을 多幸으로 生覺하나 筆者의 짧은 識見과 豊富치 못한 材料를 가지고 글을 쓴다는것을 부끄럽게 生覺하며 紙面의 制限으로 나이팅겔의 生涯를 詳細히 紹介 못하고 大略을 紹介 하려 한다.

그녀의 生涯

1820年 5月 12日에 후로렌스·나이팅겔은 이태리의 「후로렌스」라는 시골의 富裕한 家庭에서 태어났으며 자라나기도 그곳에서 자라났다. 태어난곳이 「후로렌스」였기에 그 地名을 따서 후로렌스라고 불리었다.

아버지 「윌리엄·에드워드·나이

팅겔은 케임브리지 大學出身, 어머니 「페니」의 祖父 「윌리엄·스미스」는 46年間 國會議員으로 있었으며 奴隸制度 廢止에 努力한 사람이었다. 형제는 한살 맏이인 언니 「파르세」와 단 두 姉妹이다.

집은 시골의 名門이며 두채의 큰 집과 넓은 庭園을 가지고 있고 外國旅行을 한다면 「런던」의 社交界에 加入할 수 있는 身分이었다. 自家用 馬車가 여러개 있어서 그것을 자유롭게 使用하며 有名한 사람들과 交際가 많고 讀書에도 不自由하지 않은 便이여서 모든 教養 모든 俗世的인 享樂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

그러므로 나이팅겔은 無事平穩하고 幸福한 一生을 보낼려고 生覺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境遇였으나 그는 그러한 安穩하고 順應性의 人間은 아니었으며, 좀 特有하고 情熱的이며 固執이세며 纖細하여 여섯살 때 벌써 富裕하고 平穩한 生活이 아무 興味없는 일 이라는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自己 一生을 社會에 奉仕할 수 있는 일을 하고싶다고 願하고 있었다.

그는 少女時節부터 늙을때까지 秘密 노트라고 할 수 있는 手記를 쓰는 習慣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自己의 內部生活이나 感想을 吐露하였으며 언니나 딸은대로 即 달력된 장이나, 편지의 餘白에도 적었기 때

문에 지금까지도 그의 많은 記錄이 남아있다고 한다.

1837年 2月 7日(16歲때) 「하나님은 나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啓示하여 주셨다」라고 쓰여있다. 그러나 나이팅겔은 아직 어떠한 奉仕부터 해야할 것 인지는 自身도 모르고 있었으나 아주 젊을때 부터 病院의 일에 興味를 가지기 始作하며 慈善事業에 關係하며 가끔 病院에 訪問하고 있을 동안 看護의 不備가 아주 심함을 알고 正規의 教育을 받은 看護員이 必要한 것을 痛感하게 되어 어떻게 하든지 看護員이 되어야 하겠다는 信念이 強하여져 그는 病院과 公衆衛生에 關한 論文들을 工夫하기 始作했다.

그 다음 2年間 그들 姉妹는 兩親과 함께 「유럽」旅行을 떠났고 그후 「런던」에 갔었다. 그 時節은 매우 즐거웠고 「후로렌스」는 大端히 人氣가 있었다. 그는 「댄스」를 잘 했고 너무나 많은 「파트너」들에게 둘러싸여 얼떨떨할 지경이 었다. 또 名門의 親舊들의 注目을 끌었고 그의 어머니는 그를 훌륭한 結婚을 시키려고 計劃했었다.

그러나 「후로렌스」의 良心은 괴로웠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 享樂을 즐겼고 따라서 그 享樂을 멀리하기 爲한 修練을 쌓지않으면 안되였다. 그는 日記帳에 다음과 같이 썼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資格있는 自身을

난들기 爲해서는 社交界에서 有名해 지려는 慾望인 것 誘惑을 이겨야 한다.」라고.

1842年 여름, 나이팅젤은 가장 獻身的이고, 또한 最初의 諸婚者가 되는 「리차드·몬크튼밀즈」란 남자를 알게 되어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때 그 男子의 나이는 33歲로 「런던」의 社交界에서 빛나는 地位를 차지하고 있었고 有名한 政治的인 經歷의 所有者였으며 또한 慈善事業에도 興味를 가지고 있었다.

1851年 3月 나이팅젤은 「몬크튼밀즈」와 말할 수 없이 熱熱한 사랑에 빠지고 있었으나, 그는 싹트고 있던 自己의 使命感 때문에 그것을 받아 드리지 못했다. 그와 만나 正式으로 結婚을 拒絕하고 6월에 再次 「카이젤스·베르트」에 가서 6個月間 修業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結婚을 正式으로 拒絕한 후 이렇게도 記錄되어 있었다. 「나는 모르겠다. 내가 그를 拒否한 후 하루도 그에 對한 懇切한 生똥이 없이 지낸날은 없고 그의 愛情이 없는 나의 人生은 悲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그러나 그는 꼭도록 그리워 하면서도 참아나갔다. 한편 愛情에 對한 그리움이 너무 強熱하여 모든것이 無事할 수 없다고 生똥하여 人間關係에서 自己를 멀리하며 사랑, 結婚, 友情까지도 拋棄하게 되었던 것이다.

1845年 「위러」라는 距離에 傳染

病이 發生해서 看護에 從事하지만 自己의 未熟함을 깨닫고 醫學工夫에 힘썼다. 이 무렵부터 自己의 使命을 確信하게 되며 또한 「하우」博士(盲人教育, 白痴教育을 行한 美國의 博愛家)로부터 激勵을 받고 그의 決意는 한층 더 굳어졌다. 그러나 當時 看護員은 가장 卑한 階級の 女子가 하는일로 알고 있었으며 事實, 不道德하며 슬취하고 卑劣하며 風紀를 문란케 하는 非道德的인 看護人들이 많았고 그 當時 名門出身의 淑女가 할 일이 아니었으므로 견디기 어려운 反對가 일어났다. 그런 까닭으로 「소울즈베리」病院의 「파오러」博士 밑에서 見習하려고 計劃했으나 家族의 극렬한 反對로 實現 못했다.

1849年 부터 1850年에 이르러 親舊들과 함께 「유럽」과 「에지프트」에 旅行한 機會에 新敎, 舊敎 兩쪽의 病院을 見學하였으나 특히 「필마스톤」 卿과 같은 著名한 분과 오랫동안 生活하면서 看護法의 重要한 일을 알게 되었고 또한 獨逸의 「카이젤스베르트」의 有名한 新敎牧師 「프리드너」가 經營하는 「디코베세스」病院에도 滞在하여 看護法의 實地研究를 하며 病院管理와 看護員養成法을 배웠다.

看護의 일은 當時의 英國은 유럽 大陸보다 훨씬 뒤떨어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歸國後 나이팅젤은 正規의 看護訓練을 받고 또 「런던」, 「파

터키, 「에딘바라」其他各地의 病院의 看護實態를 調査하고 있었다.

1853年 6月 8日 「과리」의 慈善 姊妹會에서 經營하는 「하나님 攝理의 집」의 일을 보게 되었으나 病을 얻어 한달만에 그만두고 「런던」으로 돌아왔다.

8月 12日 「런던」의 「하데이」衛의 “淑女病院”의 看護員長으로서 自己 理想의 看護事業에 從事하게 되었으며 看護員으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이 所屬이 어머니와 언니에게 傳해지자 또 집안에 큰 騷動이 일어났었고 언니는 울며, 辱說하며, 精神發作까지 일으켜 자리에 눕게되고 어머니도 大騷動을 일으키고 嘆息하여 結局에는 強心劑를 使用해야만 했고 아버지도 大端히 憤慨하였으나 나이팅겔에게 一年에 500 파운드를 주는데 同意하였다.

× × ×

1854年 3月 「크리미아」戰爭이 일어났다. 「크리미아」戰爭이라고 하는 것은 「터키」에 있어서 宗教上의 紛爭을 契機로 해서 「英國」, 「불란서」의 聯合軍이 「터키」를 도와서 「러시아」를 相對로 크리미아 半島의 要塞 「세바스토폴리」의 防攻을 中心으로 싸운 戰爭이다. 「러시아」의 皇帝는 니코라이 1世, 「불란서」는 나폴레옹 Ⅲ世, 英國은 빅토리아 女王의 時代로서 러시아와 터키는 이미 前年의 1853年에 開戰하여

터키가 지고 있을때 러시아의 南方 進出을 좋아하지 않은 불란서와 英國이 參戰하게 된 것이다. 結局은 聯合軍이 이겼으나 大端한 苦戰으로 「콘스탄티노플」郊外의 「스크타리」에 있는 英國 陸軍病院(野戰病院)에는 連日 많은 負傷兵과 患者들이 後送되어 왔다. 그 慘狀은 어떠한 人間도 참아 눈으로 볼 수 없을 程度로 病院의 設備나 看護狀況이 不良하게 混亂을 일으키고 있었다. 當時 런던의 「타임誌」의 通信員으로서 從軍하고 있던 「월리엄·하워드·렛셀」에 依해서 이 慘狀이 報道되어 英國의 全國民을 놀라게 했고 나이팅겔을 興奮시킨것도 이 報道였다. 그는 即時 陸軍省에 志願했다.

이미 戰爭터에서 救護를 求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國民의 世論도 높아져 있었다. 마침 聖요한 看護團(38名)이 從軍을 志願하고 있었기에 陸軍大臣 「시드니 허버트」가 나이팅겔을 그 看護團의 總指揮者로 任命했다. (多幸이도 「허버트」는 그의 소꿉親舊였었다.) 그리고 그의 任命은 國民의 注目を 끌었다. 只今까지 그만큼 有名해진 女性은 없었고 그의 어머니와 언니는 恍惚感에 淪쳐 그들이 反對해서 거의 精神異常의 狀態까지 만든것도 잊어버리고 그의 使命에 符合하는 豊富한 經驗을 稱讚하며 祝賀하였다. 나이팅겔은 早速히 그 看護員들을 引率하여

두 명의 親友와 같이 10月 21日 런던을 出發하여 11月 4日 「콘스탄티노블」에 入港하여 「스크타리」를 向하여 떠났다. 그것이 그의 偉大한 生涯의 出發이 된 것이다.

11月 5日 現地에 到着해보니 慘狀과 混亂이 本國에서의 報道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었다. 無計劃으로 지어진 病院의 복도나 큰방에 高熱과 凍傷에 呻吟하는 兵士들, 手足을 切斷한 者들, 다 죽어가는 赤痢患者와 コレ라患者들…… 그들에게는 옷도 毛巾도 제대로 없고 寢臺도 없이 다 혈은 마루바닥에 줄지워 누워 있었고 그들이 最前方에서 누워있던 그대로 피와 惡臭로 沾은 毛巾에 몸을 감고 있었다. 炊事場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食事도 못주었고 醫師들이 모자라 그들은 그들을 돌보아주지도 못하는 狀態였다. 汚物의 處理도 不充分하고 惡臭이 진동하고 바닥이나 壁도 다러러서 먼지 투성이고 수 많은 害虫이 여기저기에 기어다녔다고 한다.

이들 看護員 一行에게 여섯개의 房이 配當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부엌이고 다른 하나가 十尺사방의 便所로 되어 있었다. 房들은 모두가 濕氣가 차고 더럽고 家具도 없으며 몇 개의 寢臺와 의자가 있을 뿐이었다. 房 하나는 아직도 「러시아」 將軍의 屍體로 占領되어 있었다. 房들은 掃

除도 되어있지 않고 또 清掃할 아무런 道兵도 없었다. 그래서 大部分의 隊員들은 所謂 「터키式寢臺」 即 마루바닥에 널판대기를 걸치고 그 위에 寢兵를 깔은 式의 寢臺를 만들어 잠을 자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렇게해도 寢具가 모자랐고 먹을 것도 없었고 料理할 材料도 없었고 온 病院에는 饑餓狀態가 繼續되고 있었다. 등잔도 촛불도 없어서 어둠속에서 잠을 자야했는데 게다가 “벼룩”과 “귀”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하였고 그들의 士氣는 完全히 죽어 버렸다.

이 慘狀을 改善 救助하기 爲해서 나이팅젤의 超人的인 活動이 始作되었다. 改善이란 쉬운일이 아니고 徹底한 改革이 必要했던 것이다. 最大의 困難은 病院管理者들의 頑固하고 愚鈍한 根性和 組織으로서는 일을 할 수 없었고 淸으로 沒常識한 編制였다. 나이팅젤의 인의 價値를 理解해 주지 않았고 法規와 前例를 가지고 時時로 反對하였다. 그런고로 管理自體의 大改革이 必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意志와 性格이 強한 것과 忍耐와 根氣, 同情과 慈愛의 깊이가 차차 管理者들과 兵士들을 屈服 시키도록 되었다. 決意가 強한 그의 努力앞에서는 누구든지 讓步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하여 傷痍兵들의 死亡率은當初에는 42%의 高率이 었으나 半年동안에 3.2%까지 低下했다는 顯著한 改善이 이루어졌다.

「스쿠타리」의 事務이 좀 좋아지고나서 그는 크리미아의 前線에도 나가봤으나 그곳에서도 山더미 같이 쌓여져 있는 일을 하나도 이루워 놓기 前에 그는 무거운 虛脫에 빠지고 말았으며, 어느날 심한 衰弱과 疲勞感에 사로잡히더니 그 다음날 순회하는 途中에 失神하고 말았다. 그는 무거운 熱病에 (크리미아熱) 걸렸던 것이다. 이 消息이 發表되자 이 消息을 들은 모든 國民을 놀라게 하였고, 「스쿠타리」에서는 “모든 將兵들은 蹙쪽으로 머리를 돌려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어느 醫師는 쓰고 있다.

二週日 以上이나 그는 生死의 境界線을 헤매었으나 다시 「스쿠타리」에 돌아와서 休養, 回復하여 다시 「크리미아」에 가서 活動을 繼續했다. 病으로 쓰러진것도 勿論 過勞가 原因이 었을것이고 每日 20時間이나 일하는날이 많았던 모양이다. 極甚한 每日의 勞動뒤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잠든 무렵에 혼자 “램푸”를 들고 病院에 있는 士兵들을 보고 다니며 그 한사람 한사람의 安否를 묻고 或은 慰勞하며 激動했다고 한다.

그래서 將兵들의 全部가 그를 “램푸를 갖인 婦人”(The Lady with the Lamp)라 말하고 敬慕하며 讚美하였다. 「그녀가 患者앞을 지나가는것을 보는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다. 그는 患者마다 말을 건네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微笑를 띄운다. 우리는 여기에 數百名 누워있지만 우리에게 떨어지는 그의 그림자에 「키스」할 수가 있었다」라고 한 士兵은 記述하였다.

한편 그는 이 病院의 管理機構의 全體를 改革해버린 程度로 큰 才能과 手腕을 發揮하고 있었다.

× × ×

1856年 4月 29日 겨우 終戰이 되어 勝利는 聯合軍에 것이되어 4個月後인 8月 15日에 나이팅겔은 國民의 熱狂的인 大歡迎을 避하여 變名으로 隱密하게 英國의 「리허스트」(예전의 집)에 돌아왔다. 本國에서는 이미 그의 名聲이 大端하여져서 그가 돌아오고나서 群衆은 歡迎으로 밀어 닥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며 그의 옷자락을 만지며 손을 만져보려고 하며 熱狂的인 歡迎이 었었다고 한다.

1856年 9월에 빅토리아女王을 謁見하여 女王으로부터 懇篤한 親書와 “부토—치”를 下賜 받았다. 그리고 나이팅겔은 女王에게 病院改革

案의 改善을 上申했다. 그리하여 스쿠타리 陸軍病院에 있었던 悲慘한 狀態가 어떠한 때나 어떠한 곳에서나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病院이나 看護의 機構를 만드려 내도록 그는 自己몸의 아직 不充分한 回復도 돌보지 않고 強力한 運動을 開始했다.

英國民은 그의 功績과 熱意에 報答하며 感謝하여 그 事業을 살리기 爲해 全國的인 募金運動이 일어나 막대한 돈이 (5 萬파운드) 募金이 되어 傳達되었다. 그것으로 그는 1860 年에 聖토마스病院 (St. Thomas' Hospital) 內에 Nightingale Home 이라는 看護學校를 創設할 수 있게 되었다. 近代的, 體系的인 看護員教育機關을 創始한 것이다.

이 Nightingale Home(看護學校)의 出身者가 그후 世界各國에 進出하여 나이팅걸制度를 넓히게 되었다.

나이팅걸은 그 以來 많은 病院이나 看護施設의 創立, 改善에 努力을 繼續했으나 그 中에는 貧民을 爲한 特別訓練을 實施한 看護員養成學校도 있다.

그의 活動의 目標 範圍는 決코 直接 看護法의 研究 改良뿐만 아니고 陸軍이나 一般病院 全體의 管理機構, 醫療制度 또한 病院 及 一般의 衛生

狀態等に 있어서의 根本的인 改善 近代化에도 큰 일을 하고 있다. 또한 英國 뿐만 아니라 印度에 있어서도 같은 일에 貢獻하고 있다. 그리고 看護員의 社會的 地位의 向上 確立에 絶對的인 努力을 기우린것은 말할 것도 없다.

陸軍病院의 改善에 있어서도 陸軍省과 같은 機構改革까지 손을 뻗치게 되었으나 頑迷한 當局者들을 모두 敵으로 불리고 激甚한 鬭爭을 繼續했다. 그러한 急激한 運動中에 그의 훌륭한 家門이나, 크리미아 以來의 그녀 自身の 굉장한 名聲이 大端히 有利한 條件이 되었으나, 그보다 더 큰 힘이 된것은 當時의 陸軍大臣(前述한) Sidney Herbert 가 그의 親戚 였었고 그에 對한 깊은 理解者였었던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 허버트가 나이팅걸의 情熱에 壓倒되어 過勞에 빠지고 陸軍省의 改革이 成功하기 조금 前에 아깝게도 急死했기에 改革은 成就 못했다고 한다.

나이팅걸의 生涯는 몹시 고되고 苦痛스러운 것이 었지만은 末年에는 그 報償을 받았다. 末年에 가서 視力과 記憶力을 喪失 했지만(1895 年 頃부터) 그는 幸福에 充滿한 老年期를 보냈다. 거의 各界의 宗敎人, 國

王, 女王, 政治家들이 그를 訪問 하였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聖經의 말씀과 같이 尊敬을 받았다. 후로렌스·나이팅겔은 1910年 8月 13日 逝去하셨다. 그는 自己가 죽은후 어떠한 記念碑도 세우지 말고 葬禮式도 盛大히 하지말아 달라고 遺言했지만 國民葬이 성대히 거행되었고 그의 遺骸는 「웨스트민스터」寺院에 安置하려 했다. 그러나 후로렌스의 願에 의해서 그에대한 最後의 名譽도 가족에 의하여 거절되고 그때인 「함푸셔」州 「이스트웰로우」도시에 있는 聖 마가렛敎會의 先山에 安置되었다.

<結 論>

그의 여러가지의 極甚한 그리고 길고 긴 生涯의 善한 싸움중에도 患者에 對한 看護活動 그것은 어찌까지나 科學的으로 嚴格하고 어찌까지나 感情的으로 부드럽고 誠實한 것은 하루도 變함이 없었다. 또한 그 때로의 精神을 看護訓練指導에 있어서도 嚴格하게 要求되며 浸透되어 있었다.

나이팅겔의 性格에는 두가지의 큰 面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어떠한 거치른 反抗의 人士兵들도 溫柔하게 할 수 있는 慈愛同情 親切이라고 하는 “天使”의 一面, 또 하나는 英帝國의 陸軍省의 官吏들에게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剛直, 根氣, 鐵의 意志를 가진 騎士의 面.

그의 性格이나 일에 있어서의 이 두가지 面의 前者만이 強調되고 後者를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온것은 韓國뿐만 아니라 世界的인 것 같은 느낌이다. 그 原因의 하나는 그의 自身의 著述이 一般的으로 잘 읽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生覺이다. 그의 著述에는 200 程度의 單行本, 小冊子, 論文이 있고 其外에도 12,000 以上の 편지가 남아있다고 한다. 그 內容은 看護法, 軍隊病院, 印度나 植民地의 衛生 社會運動, 婦人運動, 宗教, 哲學 其他 넓은 分野에 이르고 있으며 이 모든것이 流水準의 것이라고 한다.

婦人運動의 發達에 미친 影響, 赤十字創立을 하는데 「앙리·듀낭」에게 준 動機와 感動, 國際看護協會의 設立에 示唆한것 그의 살아있는 歷史를 살펴보려는 筆者에게는 限없이 興味를 이끌어주는것들이 많다. 그러나 紙面關係上 나이팅겔의 紹介는 이것으로 그치려 한다.

우리는 좀더 그가 이루워 놓은 수 많은 業績이나 名聲보다 더 重要한 것 即 自己가 말아서 하지 않으면 안될 使命을 向하여 忠實하게 專心 專力을 다하여 繼續해온 그 魂을 무엇보다 그 精神을 배워주었으면 하는 生覺이다.

<서울市立 西部病院 看護員長>